

영암형 도시 모델, 교통지구 도시개발 첫 삽

‘영암 교통지구 도시개발 기공식’ 열고 신도심 건설 착수 문화예술회관·공공도서관 등 저출산고령화 해법 제시

문화예술과 교육, 지역 활력이 어우러져 지역문제의 해법을 제시하는 ‘영암형 도시개발’이 첫 삽을 떴다.

영암군이 26일 영암읍 교통지에서 ‘영암 교통지구 도시개발사업 기공식’을 열었다.

이날 기공식에는 민선 8기 영암군의 첫 도시개발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전남도의원, 영암군의회의원장과 영암읍 이장단 등 영암군 안팎에서 다양한 인사 등 200여 명이 함께 했다.

‘영암 교통지구 도시개발’은 영암실내체육관 맞은편 영암읍 교통리 189,602㎡ 부지에 주거·교육·문화·상업 등 복합 기능을 갖춘 신도심을 세우는 사업.

이 사업은 ‘혁신으로 도약하는 더 큰 영암’을 구호로 출범한 민선 8기 영암군의 혁신 도시개발 집약체로 평가받고 있다. 영암군이 지향하는 ‘더 큰 영암’의 단면을 눈으로 확인하는 장이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교통지구 도시개발은 영암문화예술회관과 영암공공도서관 건립, 지역활력타운 조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 새롭게 마련된 공간들이 영암군민과 어떤 시너지효과를 낼지 기대된다.

영암군은 교통지구 도시개발로 대한민국 농

촌이 직면한 저출산, 청년인구 감소와 노령인구 증가, 취약한 정주여건과 일자리 부족 등 다양한 문제에 해법을 제시하는 ‘영암형 도시 모델’을 세우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민의견을 바탕으로 주거·편의·상업·문화시설 위주로 계획된 기존 개발계획을 보완하기 시작했다. 주민설명회와 온라인 주민투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한 영암군은, 올해 2월 전남교육청과 협약을 맺고 주민의 뜻을 반영해 영암공공도서관의 입지를 기찬랜드에서 교통지구로 옮겼다.

총사업비 191억 원을 투입해 교통지구에 들어설 영암공공도서관은, 월출산국립공원을 무대로 한 국내 유일의 기후·생태·환경 교육 거점도서관으로 건립된다. 영암군은 책과 사람, 자연과 생태가 공존하며 지속가능한 삶을 가꾸려는 복합문화교육 공간으로 도서관을 꾸미기로 했다.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이 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해 영암으로 이사오게 만드는 것이 영암군의 목표다.

지역 문화예술의 중심으로 영암군민의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권을 보장할 영암문화예술회관도 454억 원을 들여 건립된다. 2026년 영



암군민은 교통지구 800석 규모의 대공연장, 140석 규모의 소극장을 갖춘 문화예술회관을 갖게 된다.

문화예술회관이 완공되면, 영암군은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유치해 공연문화 활성화에도 나선다. 영암군민이 일상의 한 축을 문화예술로 채워 삶의 깊이를 더하고, 풍요로운 여가를 보내는 날도 머지않았다.

주민자치와 지역순환경제로 교통 주민공동체가 지역의 내일을 주민 손으로 열어가길 산실로 지역활력타운이 들어선다. 여기에는 주거단지와 함께 커뮤니티센터, 소공원 등이 조성돼 주민공동체 활동의 중심 공간으로 사용된

다. 영암군은 지역활력타운 조성을 위해 내년 국토부 공모사업 선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교통지구 도시개발은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이 가꾸갈 도시를 건설하는 민선 8기 혁신 영암의 핵심 사업 중 하나다. 저출산 고령화 등 다양한 지역문제에 해법을 제시하는 ‘영암형 도시 모델’을 교통지구에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교통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2026년 6월 준공, 7월 토지 분양으로 이어진다. 영암공공도서관은 같은해 12월, 문화예술회관은 이듬해 12월 준공 예정이다.

영광단주 행복주택 입주 자격 완화...추가 모집

영광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영광단주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예비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지난 12월 22일 밝혔다.

모집세대는 26B형(전용면적 26.98㎡, 13평형) 고령자(주거약자용) 1호, 44형(전용면적 44.58㎡, 23평형)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70호로 총 71호이다.

이번 추가모집은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의 소득요건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최대 150% 이하로 완화하였으며,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기간 요건을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자녀 연령은 6세 이하에서 9세 이하로 완화하여 모집한다.

이번 공급되는 영광단주 행복주택의 임대료는 주변 시세보다 60% 정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가 가능하며 고령자(주거약자용)의 경우 최저 임대보증금 339만 2천 원에 임대료 월 14만 1천 원 수준,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의 경우 최저 임대보증금 636만 원에 임대료 월 23만 6천 원 수준에 입주할 수 있다.

청약접수는 2024년 1월 5일부터 1월 9일까지 누리집(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App 명칭 LH청약센터)로 신청 가능하며,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운 자에 한하여 1월 9일(10:00~15:00) 하루 현장 방문 접수(영광군청 별관, 구 영광읍사무소)할 계획이다.



합평군, 원로 정책자문회의 개최

합평군은 26일 “미래지역발전 비전사업 등 군정 주요 정책사업 추진과 관련해 경험과 지혜를 갖춘 역량 있는 군민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합평군 원로 정책자문 회의”를 이날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상의 합평군수는 전직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및 군의회 의장, 지역인문인 대표, 기업인, 퇴임한 교육인과 금융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하우를 쌓아 온 지역민 40명을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회의에서 지난 9월5일 김영록 도지사과 이상의 군수가 함께 발표한 합평군 미래지역발

전 비전사업에 대한 주요 내용과 현재까지 추진 상황에 장정진 기획예산실장이 설명하고, 참석자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비전사업과 자문회의의 바람직한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상의 합평군수는 “비전사업의 실현을 위해서 오늘 참석해 주신 원로 위원분들의 더 많은 관심과 지혜로운 고견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위원분들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새로운 도약 희망찬 합평 건설의 자양분으로 활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합평=김광춘 기자

신안군, 어업용 폐유통 압축기 1개소 추가 설치

신안군은 폐유통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신안군수협 송공위원장에 어업용 폐유통 압축기 1개소를 추가로 설치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어선의 동력화로 폐유 발생량이 증가하는 추세에 대응하여 선박 폐유의 회수율을 높이고, 방치된 폐유통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쾌적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

표로 추진하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어선으로부터 발생하는 폐유·폐유통을 수거해 정정바다의 보전과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신안 갯벌 보호 및 깨끗한 어촌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어업인들이 자발적 수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신안=이덕주 기자

무안군, 2023 공간정보 및 도로명주소 연구과제 경진대회 2개 분야 대상 수상

무안군은 전라남도 주관 ‘2023년 공간정보 및 도로명주소 연구과제 경진대회’에서 공간정보와 도로명주소 2개 분야 모두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경진대회는 도내 시·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국토의 디지털화, 주소체계의 고도화 등 공간정보의 활용가치를 제고하고 미래에 대비하는 신기술 개발 추진을 위해 개최됐다.

시상식은 지난 22일 나주시 빛가람호텔에

서 개최된 ‘2023년 디지털 전환과 공간정보 미래전략 포럼’에서 진행되었으며, 이날 포럼에서 민원지적과 문제점 주무관은 공간정보 분야 ‘드론 수심측량 및 DB 활용을 통한 해양안 전사고 예방 연구’, 나누리 주무관은 도로명주소 분야 ‘노후 건물번호관 정비 효율화 방안’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로 대상을 수상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목포시 보건소, 헌혈추진 협의회 개최...9개 기관 운영

목포시 보건소는 지난 20일 목포시 헌혈추진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헌혈추진협의회는 ‘혈액관리법’ 제4조의6 및 「목포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보건소장 박기석)을 포함 총 9개 기관으로 구성·운영된다.

9개 기관은 목포시, 시 의사회 다윗365내과, 상공회의소, 목포MBC, 목포한국병원,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 유달헌혈봉사회, 목포교육지원청,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5년 목포시 헌혈 참여 실적과 단체헌혈, 홍보 등 헌혈 관련 사업을 공유하고 시민 헌혈 인식 개선 방안 마련과 헌혈자에 대한 예우 강화 방안 등 안정적인 혈액 공급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김태성 목포유달헌혈 봉사회 회장은 “목포시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리며 이후에도 지속된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된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했다.

목포=기동채본부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